

電算化는 물론, KORSTIC 회원관리시스템에도 活用케 되었다.

KORSTIC에서는 특히 금년에 두건의 國際會議를 開催하여 國家情報서비스機關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한편 國際協力體制를 모색하기도 했다. KORSTIC이 미국 NTIS와 공동으로 主擧한 「제 1회 아시아지역 NTIS代行 機關長會議」에서는 정보이용자들의 대처방안과 NTIS및 협력기관과의 정보서비스 효율화와 정보이용자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이 논의되었으며 10월 개최되어 9개 회원국과 7개국제기국에서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대양주지역회의」 제 5차총회에서는 情報流通網構築추구등 14개항의 決意文을 채택하는 등 情報서비스에 있어서의 國際協力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신과학기술에대한 情報 서비스요구는 계속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급증하는 서비스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全國的인 情報流通體制를 확립해 주십시오』 완전한 정보유통체제 확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李실장은 기업체에서의 정보검색시스템에 대한 認識부족

을 아쉬워하며 『外國의 先進技術情報에 대한 검색은 우리나라 기술개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李실장은 이러한 정보입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때 전국적인 유통체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KORSTIC은 앞으로 5개년을 단위로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인 정보유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대덕전문연구단지내에 databank의 본산지가 될 computer center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덕지역 전역을 cover하는 서비스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情報를 中央科學技術대출도서관(假稱)을 세워 수요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입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하고있는 정보서비스실적이 선진외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李실장은 『외국의 최신 기술정보를 신속히 입수해서 정보제공수요자에게 성실히 서비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한해도 유통체제확립에 가일층 노력할것을 다짐한다.

한국과학재단

韓 · 美 · 獨 · 佛 · 日과 科學協力체결

國內 研究支援事業 적극推進

科學技術인들의 기대와 깊은 관심속에 지난해 出帆한 韓國科學財團(理事長 崔亨燮)이 그동안 체제정비를 하고 금년부터는 本格的인 研究支援事業에 착수했다.

과학재단은 첫번째 지원사업으로 지난 5월 數學, 物理學 등 5개 기초과학분야와 材料工學, 電子工學 등 4개 工學分野 등 9개분야에 기초연구활동지원대상과제로 92과제를 선정하고 3억 4천만원의 研究費를 지급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실

시되어 오던 산발적이고 미약한 지원과는 달리 이번 지원사업은 각분야별로 연구과제의 우선지원분야를 미리 선정하여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이 특징이다. 과학재단은 보다 공정한 평가와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관리를 위해 앞으로 中間評價制와 回覽審查制(peer group review)를 채택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는 모든 국내외 관계전문지에 발표토록하여 광범위한 평가를 받게 할 방침이다.

과학재단은 또한 연구장학금제도의 실시로 지난 8월 석사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연과학분야의 70여명의 과학도들에게 모두 2,500만 원에 달하는 연구장학금을 전달, 理工系과학도들에게 활력소가 되었다. 이들에게는 78년 2학기 등록금전액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23명에게는 달마다 4만원씩,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47명에게는 매달 3만원씩의 연구보조비가 지급된다.

이같은 장학사업은 우수한 과학도들이 학업이외의 직업을 갖지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것으로 79년부터는 그규모를 78년의 2배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同財團은 과학기술자의 研究意慾을 고취하기 위하여 研究獎勵金制度를 마련, 내년 부터 실시키로 하고 정부와 민간출연기금에 의한 3억4천만원과 정부보조금 3억원등 6억 4천만원으로 金賞 15명에게 1천만원씩, 銀賞 20명에게 7백만원씩, 銅賞 40명에게 5백만원씩, 그리고 獎勵賞 150명에게 50~100만원씩이 지급되는 데 이 연구장려금은 KIST를 비롯한 정부출연기관이나 國公立 및 기타 研究機關, 大學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일정기간에 발표한 논문, 특허등을 심사해서 선정 지급케 되는 것이다.

과학재단은 금년한해동안 활발한 國際協力事業을 전개하고 작년에 수립되었던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먼저 지난 6월 美國立科學財團과 제 2차공동위원회를 갖고 이미 진행중인 공동연구사업과 과학협력사업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3차공동위원회는 내년 5월중에 서울에서 열기로하고 4월과 6월중에는 遠隔探查(Remote Sensing)와 海洋物理學분야의 韓·美共同세미나를 開催키로 合意를 보았다.

또한 11월에는 獨逸技術協力廳과 그동안 추진되어오던 技術協力事業으로 「에너지, 농어촌 적정기술연구 및 자원활용기술」에 관한 用役契約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사업을 펴기로 했다.

한편 불란서 국립과학연구센터와도 科學協力

의 窓口가 마련되어 同센터와 과학기술처간에 체결되어 있는 韓·佛科學協力協定을 科學技術處대신 당재단에서 맡기로 하고 7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日本學術振興會와는 장기방문(6개월~1년)과 단기방문(2~4개월)으로 하는 科學者交換事業을 펴기로하고 내년초에 正式으로 協定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미 協定推進을 위한 양측대표간의 訪日과 來韓을 통해 협력가능성을 타진하고 공동연구분야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밖에도 同財團은 5件的 國際學術會議開催를 비롯한 國際會議참가지원과 외국의 저명과학자 50명을 초청하여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바 있는데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며 국제회의 참가경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세계적 物理學者인 韓國의 故 李輝昭박사추모 기념강좌(Benjamin W. Lee Memorial Lecture)를 開催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講座의 하나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와함께 우리나라 物理學의 도약적인 발전을 위해 이태리 國際理論物理學센터 연구과정에 젊고 유능한 과학도들을 파견 훈련시키는 한편, 오스트리아의 Leoben광산 및 금속전문대학과 Voest-Alpine철강연구소에 금속재료분야과학도를 파견하여 박사학위취득과 현장기술훈련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在美科學協力 협력사업으로 在美科學技術者들의 최근 연구내용을 수록한 研究論文抄錄集을 分野別로 分類·發刊, 國內 각연구소 및 도서관에 배포하여 활용케 할 계획이다. 이 초록집은 내년 1월경에는 발간될예정으로 국내외 과학기술자들의 학문적교류에 기여케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재단은 이와함께 在美科學者二世를 위한 장학사업으로 미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자연과학 및 공학을 전공하는 과학도들이 하기방학을 이용하여 국내연구소나 대학에 연구조수로 일하면서 研究交換케할 계획인데 교포 2세들의 母國語습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